

2019년 현 정세분석과 바른미래당 대응전략

본 보고서는 2019년 4월 25일, 바른미래연구원에서 발간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내부 공개용 보고서로, 원문 등을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김 근 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 출 문

바른미래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과제인 “2019 현 정세분석과 바른미래당 대응전략”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년 4 월 25 일

:

- 책임연구자 : 김 근 식
- 연구자 : 김 윤
- 연구자 : 김 용 석
- 연구자 : 김 태 형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바른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차례

I. 상황평가와 정세인식

1.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지지율 하락 가시화
2. 4.3 재보선 결과 이후 바른미래당의 상황

II. 바른미래당의 중도가치와 정체성

1. 바른미래당 탄생의 배경
 - (1) 사회·경제적 배경
 - (2) 정치적 배경
2. 바른미래당의 탄생과 한계
3.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정체성 논의
 - (1) 시대진단
 - (2) 기조와 주요 정책
 - (3) 중점 정책전략 예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 (4) 새로운 바른미래당의 모습

III. 바른미래당 노선을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란

1. 창당 정신으로 '제3의 길'
2. '보수대통합'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
3. 호남·중도정치 복원, '제3지대 빅텐트론'
4. 20·30 청년 중심 중도보수정당
5. 공격형 이슈정당

IV. 총선 이전 정국 전망

1.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 (1) 제대로 된 개혁은 하지 않을 것
 - (2) 정치부문에서도 현 구도를 선호할 것
 - (3) 핵심 변수는 경제 성적
 - (4) 또 다른 핵심, 현직 대통령 지지율
 - (5) 또 하나의 변수, 북한
2.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예상
 - (1) 친문 그룹 대거 공천
 - (2) 대통령 간판 vs 당 간판
 - (3) 이해찬 대표 움직임 주목
 - (4) 탈당 등 분화 가능성은 낮아
 - (5) 견제심리 약화시키는 전략 짚 것
3. 자유한국당에 대한 예상
 - (1) 황교안 대표 간판으로 총선
 - (2) 이회창 총재 사례 참고할 것
 - (3) 신진·친황 인사 기용해 외연 확대
 - (4) 당내 혁신 없이 반사이익만 노리면 실패

V. 바른미래당의 총선전략

- 무엇을 할 것인가 1 - 선명 야당
 - (1) '선명 야당' 정신으로 정권 심판 주장
 - (2) 혁신 없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질타

□ 무엇을 할 것인가 2 - 당의 전면적 쇄신

- (1) 핵심 가치에 동의하면 누구나 - 플랫폼 정당
- (2) 당을 '젊은 운동장'으로 개조
- (3) 전면적인 수도권 출격론
- (4) 아직 '희망의 끈'은 남아 있다

□ 무엇을 할 것인가 3 - 원칙 있는 연대

- (1) '퇴거요구서' 보내는 행태 멈춰야
- (2) 치열한 당내 논의 필요
(제안 주제 - 독일과 한국의 연정 사례)

VI. 결론 - 결기 있는 자강, 원칙 있는 연대

- 1.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중간평가이자 정권심판일 수밖에 없다
- 2. 바른미래당의 총선 전략은 당연히 '선명한 야당 정체성 + 유연성'을 내세우는 것이 최선이다
- 3. 중도정당으로서 '결기 있는 자강'이 먼저다
- 4. 반문재인의 원칙 있는 연대
- 5. 바른미래당의 자강을 위하여

별론 - 선거제 개편에 관하여